

28장 유다와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

1.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두 번째 논죄 - 열방을 의지하는 것의 어리석음 (28:1-33:24)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7-12장)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13-23장), 그리고 종말론적 구원(24-27장)의 구조로 전개되었는데, 이어서 유다에 대한 논죄(28-33장),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34-35장)의 구조가 다시 반복된다. 다만 7-12장에서는 아하스의 불신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지만, 여기 28-33장에서는 유다의 죄를 전반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34-35장에서는 다시금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에 대한 찬송으로 연결된다. ‘이스라엘의 죄 - 이방을 통한 심판 - 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 찬송’의 구조가 두 번 더 반복되는 것이다.

28-33장에는 ‘화 있을진저’ 하는 선언이 여섯 번 나오는데(28:1; 29:1, 15; 30:1, 31:1; 33:1) 이것은 종말론적 심판이 곧 성취될 것을 나타낸다. (마치 마태복음 23장에서 ‘화로다’ 하는 선언을 일곱 번 한 후에 24-25장에서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구조이다. 5:8-23에서도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여섯 차례 사용되었다.) 28-29장에서는 통치자의 어리석음과 죄에 대한 심판, 30-31장에서는 애굽을 의지하려는 계획과 그 어리석음, 그리고 32-33장에서는 여호와와 나타나심이 바른 해결책이 됨을 제시한다.

2. 에브라임의 교만과 심판, 그리고 구원 (28:1-6)

28장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한다. 에브라임의 심판과 관련하여서는 ‘면류관’이라는 말이 세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에브라임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교만한 면류관’이라 부르고, 또한 그 성을 술에 빠진 자의 성이자 ‘영화로운 관’ 같은 성이라고 말한다. 비록 산성과 같이 높은 곳에 면류관처럼 서 있으나, 마치 면류관이 밟히듯 그 성은 파괴될 것이다. 에브라임 거민들은 술과 기름진 것을 즐기면서 교만하게 지내지만, 장차 여호와께서 큰물이 창일하게 하여서 그들을 덮치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 백성 중에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재판하는 사람에게 ‘판결하는 신’을 보내시니 그가 능력 있게 의를 행할 것이다.

3. 유다의 제사장과 예언자에 대한 심판 (28:8-13)

28:7-13은 에브라임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유다를 가리키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두 나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독주를 마시고 비틀거리며, 그들 주위에는 거룩함 대신에 토한 것으로 가득하다는 묘사가 두드러진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예언자의 말을 조롱하며,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하고 말한다. 이사야는 술 취한 그들의 말을 두 번 기록한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차바 러차바, 차버 러차바, 카바 러카바, 카바 러카바] (28:10, 13). 그들은 술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술 취한 사람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들은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인데(28:11), 풀어서 말하자면 장차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호와와 말씀이 의롭고 참됨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4. 이스라엘 지배층에 대한 심판 (28:14-22)

예언자 이사야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망과 언약’ 하고 ‘음부와 맹약’ 하였으므로 안전하다고 과신하였다. 죽음과 언약을 맺었으므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은 과장된 표현이다. 그리고 예언자는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았다’ 하는 말로도 표현하였다. 재앙이 물처럼 넘쳐도 안전할 것이라 장담하는 이유는 그들이 애굽과 정치적 조약을 맺었기 때문으로 보인다(31:1-2). 아하스가 앓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자 유브라테스 강이 유다까지 흘러와서 목까지 차오른 것처럼(8:8),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만(輕慢)히 여기면서 그러한 말을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시온에 한 주춧돌을 두어서 그것을 믿는 자는 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물이 넘침 같이 넘치는 재앙으로 심판당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조롱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그들의 멸망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브라심에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삼하 5:20) 기브온에서 해와 달이 멈추도록 하시면서까지 가나안 원주민을 물리치셨지만(수 10:10-11), 이제는 이방처럼 된 이스라엘을 친히 진멸하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백성은 교만을 버려야 한다. 교만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다(28:22).

5. 농부의 추수와 하나님의 심판 (28:23-29)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농부의 추수에 비유한다. 농부는 곡물에 따라 다르게 파종하고 추수하는데, 그러한 농사 기술은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난 것” 이고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참조 사 9:6) 그 지혜는 광대하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자연계시에 대한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짐을 알려 주는 말이다(26절에서 “적당한 방법” 이란 앞서 17절에서 ‘공평으로’ 줄을 삼고 심판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농부가 곡물에 따라서 도리깨나 수레바퀴, 작대기, 막대기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거기에 적합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농부에게 추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와 완강히 거절하는 자를 구분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다.

28장 익힘 문제

1. 에브라임의 심판과 관련하여 면류관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표현들을 찾아 써 보십시오. (1절)
2. 여호와께서는 에브라임의 면류관을 밟으시고, 그 남은 백성에게는 무엇이 되실 것이라 하십니까? (5절)
3. 이사야는 여호와와 심판을 받게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죄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7, 8절)
4. 백성을 돌보지 않고 술에 취하여 살면서 이사야의 말을 조롱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까? (11절)
5.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 여호와께서 어디에 두신 기춧돌을 믿는 자만이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할 것입니까? (16절)